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통(通)성경

치유하는교회 고등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재우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8월

Copyright © 2022 Jaewoo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Storytelling Education Through Tong Bible : A Case Study of Healing Church Seoul, Korea

Jaewoo Lee

Healing Church Seoul, Korea

Due to COVID-19, church youth ministries have faced problems that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particular,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young generation education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fter COVID-19, many churches have switched to non-face-to-face services, which have resulted them to invest their budget for broadcasting space and equipment. According to this change in ministry field, educational ministers had to learn skills for filming and video editing, and make videos by using their time for Bible study and sermon. Though facing strange and challenging task, they devoted themselves with the faith and hope that it would be rewarding as much as they had suffered. The result, however, was a failure. It was not due to the lack of video editing skills or inability to find contents fitting to youth, but due to the education itself. If youth ministries continue current system that has lasted for several decades, which is mainly consisted of biblical recitation and cramming style of bible study workbook that has the main purpose for just biblical information, young generation will not show any interest in education even though church provides them with high quality videos that contain youth popular contents.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ong-Bible study,' and suggests that how it appropriately functions as the new alternative of education.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reason why 'Tong-Bible study' is suitable for the new educational alternative with describing several educations for the young generation: one-point education, which links home to church, Havruta education, All-line education (using both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and storytelling educa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give positive effect for church and parents, who are struggling with next generation faith crisis, to transmit faith successfully.

국문초록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통(通)성경

: 치유하는교회를 중심으로

이재우

치유하는교회, 한국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는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하였고 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고 방송장비를 구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교회학교 목회자들은 빠르게 촬영과 영상편집을 배워야 했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작성해야 하는 시간을 쪼개어 영상제작을 해야 했다. 낯설고 힘든 일지만 고생한 만큼 반드시 보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다. 실패의 원인은 영상편집 능력의 부족함도 아니었고, 아이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찾지 못함도 아니었다. 문제는 교육 그 자체였다. 과거부터 이어졌던 암송이나 주입식

공과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의 지식과 정보 전달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아무리 화려한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이 주로 보는 콘텐츠를 모방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교육에 흥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통(通)성경이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원포인트 교육, 하브루타(Havruta) 교육, 온라인(On Line + Off Line) 교육,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교육을 소개하면서 통(通)성경이 새롭게 제시된 교육에 왜 필요한지, 왜 통(通)성경이 교회교육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이 연구가 많은 다음 세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4
II. 다음 세대를 위한 4 가지 미래교육	6
1.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원포인트교육	6
2. 하브루타(Havruta) 교육	9
3. 온라인(On Line + Off Line) 교육	11
4.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교육	15
III. 통(通)성경이란 무엇인가?	18
1. 통(通)성경의 목적과 방법	19
2. 통(通)성경을 통한 스토리텔링	36
IV.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	47
1.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48
2.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51
V.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와 통(通)시즌	56
1.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상황과 원인분석	56
2.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 설교	68

3.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 평가	83
4. 통(通)시즌.....	84
5. 통(通)시즌 평가.....	94
6. 통(通)하는 수련회, 통(通)시즌 설문 및 인터뷰	95
VI. 요약 및 결론.....	100
1. 연구요약	100
2. 결론과 평가	101

표 목차

<표 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1
<표 2> 하나님의 마음열기 Heart Training.....	19
<표 3> 성경 66권 역사 순 배열(20마당,40개 줄기).....	34
<표 4>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 설교 평가.....	83
<표 5> 통(通)시즌 커리큘럼.....	84
<표 6> 통(通)시즌 설문조사.....	94

그림 목차

<그림 1> 조별암송미션(1).....	59
<그림 2> 조별암송미션(2).....	61
<그림 3> 조별암송미션(3).....	62
<그림 4> 조별암송미션(4).....	63
<그림 5> 조별암송미션(5).....	64
<그림 6> 조별암송미션(6).....	65
<그림 7> 조별암송미션(7).....	66
<그림 8> 수련회 설교 (1).....	68
<그림 9> 수련회 설교 (2).....	70
<그림 10> 수련회 설교 (3).....	72
<그림 11> 수련회 설교 (4).....	74
<그림 12> 수련회 성경공부(1).....	77
<그림 13> 수련회 성경공부(2).....	78
<그림 14> 수련회 성경공부(3).....	79
<그림 15> 수련회 성경공부(4).....	80

감사의 글

논문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부족한 아들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도해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격려해주시고 사정을 봐주신 김영래 교수님, 논문에 많은 영감을 주셨던 조병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과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전민경 간사님, 진익창 전도사님, 최병환 전도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존경하는 치유하는교회 김의식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논문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치유하는교회 목회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역지는 다르지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논문작성에 도움을 주셨던 손병의 목사님, 논문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부 사역을 잘 감당해주셨던 치유하는교회 교육부 주찬양, 백향목, 김의신, 방혜성 전도사님, 그리고 임병숙, 김성혜 목사님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논문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혼자 해결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박옥례 교구권사님과 김현정, 조숙현 권사님 그리고 8교구 식구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논문을 쓴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인내하여 혼자 결혼 준비를 했던 사랑하는 아내 김은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얘기를 해야 할 시기에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결혼 후에 지금보다 더 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2년 8월

은혜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이재우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빠르게 성장했던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기에 들어 섰다. 한국 교회의 위기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6.25 전쟁 이후 약 30년 동안은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길을 걸었으나 199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췄고,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쇠퇴기에 들어섰다.¹ 이에 대해 최윤식은 “이러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 2050년-2060년경에는 300만 명대로 교인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²고했다 그는 또한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권순용이 지적하듯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최소 2.0은 되어야 하나 2000년 이후부터는 출산율이 1.5년 동안 1.3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8년부터는 1명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³

<표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⁴

¹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33.

²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

³ 권순용,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부천: 피톤치드, 2020), 101.

⁴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 *국가승인통계* 10103 (2020),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1575



이런 인구의 감소는 한국의 경제의 위기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주일학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일학교는 1980년대부터 학생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였다. 최윤식에 의하면 “예장통합 측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가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고, 기독교 성결교회는 30%가 감소했다.”⁵ 이것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 수준을 성인 크리스천과 비교했을 때, “신앙의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비율의 경우 청소년 35%, 성인 16%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교회 출석자 기준) 반면 신앙이 가장 강한 4단계 그룹의 경우 ‘청소년’ 11%, ‘성인’ 20%로 이 역시 성인이 청소년보다 2배 정도 높았다.”⁶ 이러한 현상은 청년의 시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⁵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42.

⁶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01* (서울: 목회데이터 연구소 주간리포트, 2021), 5.

이 조사의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회 학교 교육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행했던 교육방법으로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현실을 자각하고 교회 학교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교회의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란 없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는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에 직면했다. 예전처럼 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여러 교회들로 인하여 교회는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때문에 교회 모임의 중요성보다 위험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분위기는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굳이 교회에 나가서 드려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또한 문화랑이 지적하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⁷ 라는 생각과 함께 주일성수라는 예배의 개념이 흔들리면서 교회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 학교의 문제는 모든 교회가 풀어갈 숙제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⁷ 문화랑, *미래 교육 지도그리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1), 35.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원 포인트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온라인 교육, 유대인 전통학습 방법인 하부르타 교육, 공감과 소통능력을 키워주는 스토리텔링 교육. 총 4가지의 교육방법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통(通)성경이 4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하는데 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조병호, 성경통(通)독과 통(通)신학』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통(通)성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통(通)성경의 목적, 통(通)성경의 이론과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또한 통(通)성경 길라잡이, family school 통(通)성경학교를 통하여 실제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을 소개함으로써 통(通)성경의 유익함과 통(通)성경이 새롭게 변화될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치유하는교회 고등부에서 진행한 통(通)성경을 이용한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소개함으로써 통(通)성경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매우 적절한 방법론임을 증명할 것이다.

연구 범위와 제한성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포인트 교육, 온라인 교육, 하부르타 교육, 스토리텔링 교육방법들을 소개하고 조병호의 ‘통(通)성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하지만 교육의 방법은 다양하며 어느 특정 프로그램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학생들로 한정하고 그들에게 실시한 교육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필자가 본 연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하나만 대상으로 진행 한 만큼 이 프로그램을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일반화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의 교회 교육의 실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 II 장

다음 세대를 위한 4 가지 미래교육

코로나 19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학교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교육의 한계를 경험하였고 그간 있었던 교회 학교의 위기론을 크게 체감하게 되었다. 그로인하여 새로운 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 판단하였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시대를 방영한 여러 교육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교회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다. 때문에 사교육을 위해 학원에 위탁하듯이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의 교회 교육은 주입식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교회교육이 세상의 교육과 다를 바 없는 교육이 되었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교육이 되어버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많은 교육들이 나왔고 그 중 4가지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원포인트교육

그동안 이루어진 교회 학교 교육의 문제는 교회 학교에만 의존한 나머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다. 교회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지금처럼 전문사역자가 없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교회도 없었다. 연령과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부흥하였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사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앙 교육의 중심이었던 가정에서 교육이 중단되었고, 가정은 교회로 신앙 교육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했다.⁸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168:1 교육’이란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향기나무교육개발원 박미화 대표는 “168은 일주일을 24시간에 곱한 시간의 총합이며 1은 168시간 중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는 시간을 의미한다.”⁹고 한다. 즉 168시간 중 단 1시간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를 넘어서 가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운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흉내 내며 성장한다. 그것은 부모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의 태도를 자신도 모르게 학습하고 닮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적합한 장소이다.

채프 클락(Chap Clark)은 “성경은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자 사명”¹⁰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부모역할을 해왔던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자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을 권면하였다. 즉 부모에게는 자기자녀에게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쉬넬(Horace

⁸ 주경훈, *원 포인트 통합교육* (서울: 두란노서원, 2017), 20.

⁹ <https://kcnp.com/news/view.php?no=6163>(2002년4월28일 접속)

¹⁰ Chap Clark ed., *Youth Ministry In The 21 Century: Five View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5), 151-152.

Bushnell)은 “어린 시절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에서의 양육이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¹¹ 고 주장했다.

부모가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아도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없다. 부모는 말을 때지도 못한 어린 자녀에게 삶에 필요한 작은 지혜를 가르친다. 예를 들면 불이 뜨겁다는 것과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는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불을 만진다. 그리고 손을 때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불에서 손을 뗄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은준관은 가정을 은총의 수단으로 여기고 가정에서 느껴지는 기독교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² 가정의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환경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룸(Thomas Groome)역시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¹³ 자녀들은 가정에서 더 큰

¹¹ Horace Bushnell, *Christian Nurture*, 김도일 역, “기독교적 양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55.

¹²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동연, 2013), 206-218.

¹³ Thomas Groome, *Will There Be Faith?*, 조영관, 김경미, 임숙희 역,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 까”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305-307.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가정이란 울타리안에 서 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분위기는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인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더 나아가 교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부모들의 신앙과 간증 등을 통해서 자녀들은 나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 학교는 가정과 연계하여 교회와 가정에 모든 곳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하브루타(Havruta) 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성장을 위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 사전에 의하면 “하브루타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방식이며, 서로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소통을 하며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¹⁴ 암기와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하여 자기가 정리한 생각을 말하고 또 상대방이 정리한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과 해석까지 습득하는 것이 하브루타이다.

하브루타의 제일 큰 특징이자 강점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나와 토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사방이 막힌 독서실에 틀어박혀서 혼자 외롭게 공부와 씨름하며 얼굴도 모르는 경쟁자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영향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똑똑하지만 사회성이

¹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4409&cid=42107&categoryId=42107>(2002년4월28일 접속)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브루타는 좁은 공간에서 홀로 보이지 않은 대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찰력을 공유한다. 자신이 정리한 지식의 내용과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관점을 말하고, 또한 타인이 정리한 지식의 내용과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생각의 정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하브루타의 강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하브루타를 통해 얻은 신앙적 교훈을 그 다음 세대에게 공유하고, 가정에서 형제들이 하브루타를 통해 얻은 신앙적 교훈을 그 다음 세대에게 공유한다면 부모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과 그 후대에게 이어질 것이다. 보통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표적인 하브루타다. 김영래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청자(listener)는 불신의 결과로 청자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에서는 청자들의 불평과 체념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청자는 불순종에서는 능동적으로, 구원에서는 수동적인 참여자로 스토리텔링의 한 부분이 된다.”¹⁵고 하였다. 스토리텔링에 참여한 청자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모습을 돌아보고 관찰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된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브루타에 있었다.¹⁶

그동안 교회 학교의 문제는 지식만을 습득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¹⁵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91(2017), 167.

¹⁶ 전성수, *자녀교육의 혁명 하브루타* (서울: 두란노서원, 2020), 129.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있었다. 교회는 학교처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곳이다. 지식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 학교의 교육은 변화의 목적보다 성경의 내용과 교리만을 빠르게 주입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박상진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느냐 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해했고 배운 것을 활용했느냐이며 교사의 스킬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력”¹⁷이라고 하였다. 현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때에 교회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브루타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가정이 하나의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교육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통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였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엘리자세갈(Aliza Segal)은 “하브루타는 지금의 유대인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공부방법”¹⁸이라고 했다. 이처럼 교회와 각 가정은 하브루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올라인(On Line + Off Line)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제일 큰 변화를 꼽으라 한다면 언택트(Untact)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직접 사람과

¹⁷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84.

¹⁸ Aliza Segal, *Havruta Study: History, Benefits and Enhancements* (Jerusalem: Academy for Torah Initiatives and Directions, 2004), 12.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On Line으로 전환하였고 교회 학교는 교육의 통로를 유튜브(YouTube)와 줌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교육부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영상편집을 배워야 했고, 그들은 유튜버 때론 PD가 되어야 했다. 교회는 영상 콘텐츠를 고민하고 개발해야 했고 가능한 많은 영상을 찍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목회자의 기본능력이 찬양 인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편집이 되었다. 하지만 콘텐츠를 촬영하고 밤을 새워 편집을 하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지만 소수의 대형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그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¹⁹ 유튜브(YouTube)는 클릭만으로도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줌(ZooM)도 처음에는 마치 기존의 대면예배를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줌에 잘 접속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은 과연 온라인이 미래의 교육의 대안적 통로로 적합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은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의 역할이지 절대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을 놓치고 온라인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본질을 놓치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또 반대로 온라인을 무시하고 오프라인만 고집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지금 현실만 보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¹⁹ 이정현, *주일학교 체인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1), 12.

유튜브(YouTube)와 틱톡(TikTok)에 빠져 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신촌이나 홍대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유튜브(YouTube)와 틱톡(TikTok)에서 만들어진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레트로’²⁰ 라는 유행이 있다. 심지어 10대들은 과거의 시대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레트로라는 유행에 동참하였다. 그들은 90년대에 유행했던 통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90년대에 유행했던 큰 핏의 옷을 찾아 입기 시작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가수들의 영상을 보고 그들의 팬이 되기도 한다.

한때 유튜브에서는 90년에 활동했던 가수 양준일이 탑골G.D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콘서트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의도치 않은 세대통합이 이루어진 통로이자 장소가 바로 유튜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와 줌이 현재 교육에 있어서 대안적 통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이다.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것이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통로에서도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고속도로에서 20년 된 수동변속기어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줌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기존에 틀에 박힌 교육이 이루어져 있다면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마블영화와 같은 영상미가 뛰어난 영상을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영구와 땡칠이를 상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떠나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²⁰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A%B3%A0%ED%92%8D>(2002년4월30일 접속)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젊은이들의 반란(Youthquake)²¹이라 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자유와 평화를 중요시하는 히피 운동과 함께 로큰롤 음악이 주류를 이루며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대는 변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채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의 틀 안에 청소년들을 가두기에 바빴고, 그 결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던 많은 교회들의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었다.²²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교회 학교 교육은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온라인(On Line + Off Line)사역을 해야 한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렸다. 최성은은 “이제는 기존의 노멀(Normal)이 사라지고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뉴노멀 New Normal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²³ 고 말한다.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버린 특별한 일상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예전처럼 현장만 고집할 수 없고 성전예배만 고집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온라인을 다시 성전에 오게 하는 다리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교회가 온라인이나

²¹ https://ko.wikipedia.org/wiki/젊은이의_반란(2002년4월30일 접속)

²² 이정현, *주일학교 체인지*, 26-27.

²³ 최성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1), 10.

오프라인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김병삼은 “교회는 앞으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역을 가능케 하는 ‘올라인(On Line + Off Line)’ 사역의 필요성”²⁴ 을 말했다. 온라인은 앞으로도 교회사역 전반에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위해 오프라인을 배재하고 사역할 수는 없다. 오프라인의 기반이 없는 온라인 사역은 있을 수 없으며, 온라인은 성도들과 학생들을 교회와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교육

황신웅은 “스토리텔링이 창의성과 공감능력, 소통능력을 키워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최근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스토리텔링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⁵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와 ‘텔링(Telling)’ 을 합쳐 놓은 합성이며 목적을 설정하고 스토리에 있는 과정과 관계의 콘텍스트를 통해 설득하고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 각자의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기억의 구조,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의 구조를 스키마(schema)라고 한다.²⁶ 스키마(schema)는 기억하는 방식, 지식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런 스키마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신경생리학자인 수잔 바인셴크(Susan Weinschenk)는 “신경과학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두뇌가 스토리의 방식으로 기억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고리 역시 스토리의 방식임을 확인했다.”²⁷ 고 했다. 스토리텔링을 흔히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이 말은 즉 스토리텔링이 사람의 감정에

²⁴ 김병삼 외, *올라인 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21), 21.

²⁵ 황신웅,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8-9.

²⁶ Ibid., 22.

²⁷ Ibid., 24.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감정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감정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논리적 이성이 지배하지만, 행동을 하기 위한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감정이 작동한다.”²⁸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어떤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아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하도록 하려면,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회의 교육은 감정에 대한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은 교회 교육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교육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조금 전에 소개한 원포인트, 하브루타(Havruta), 온라인(On Line + off Line)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론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세련 되 보이고 신선해 보여도 그 안에 내용이 별볼일 없으면 새로 바뀐 포장지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이며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느냐이다. 아무리 온라인 영상을 잘 만들어도 내용이 재미없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토론의 주제가 어떤 공감도 주지 못한다면 토론을 하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²⁸ Ibid., 33.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재의 내용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부모와 함께하는 하기 싫은 학교숙제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하다. 김영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주의 근원이시며,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진리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스토리텔러로서 이야기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낸다.”²⁹고 하였다. 스토리를 통하여 우주의 근원이시며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올바른 신앙적 스키마(Schema)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래는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글이나 문자가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졌다.”³⁰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교육의 비결은 스토리텔링이었다. 교육의 어떤 방법이든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다.

²⁹ Ibid., 162.

³⁰ Ibid., 161.

제 III 장

통(通)성경이란 무엇인가?

통(通)성경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주창한 조병호는 통(通)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통(通)성경이란 성경 66권을 따로 과편화 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하나의 스토리로 보고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³¹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본다는 것은 주변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의미이다. 숲의 주변에 있는 나무만 보게 되면 숲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숲이 어떤 모양이며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다. 성경을 통(通)으로 보기 위해서는 3가지를 볼 수 있어야

첫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에는 대략 2,000여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등장하며 그것을 반드시 통(通)으로 봐야한다.”³² 고 하였다. 성경은 이 시공간 안에 있는 인간의 스토리를 말하는 책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공간 외에 다른 공간에서의 스토리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시공간과 인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1,500곳의 장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에 기록된 지명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백성들의 스토리가 있는

³¹ 조병호, *통(通)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11.

³² Ibid.

곳”³³ 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1,500곳의 장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어떤 사건이 있던 장소와 그 장소의 의미를 항상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잘 모른다 하여도 그 장소의 이름과 의미를 통해서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의 의미는 항상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과 연관이 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은 5,000여명의 사람 중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³⁴ 고 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세상의 모든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다. 인간이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건이다. 성경은 온통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람을 빼고서는 스토리가 진행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별개로 보지 않으며 그 시공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는 것이 통(通)성경이다.

통(通)성경의 목적과 방법

성경통독의 목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먼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반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³³ Ibid.

³⁴ Ibid.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것이다.³⁵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과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스토리는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스토리이다.

두 번째로, 복음이 확장되어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약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7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³⁶ 즉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장을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성취라는 하나의 스토리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언약,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 요한을 통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언약이다. 성경을 언약의 성취라는 하나의 스토리로 읽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에 기쁨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구약의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다.³⁷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스토리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이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 스토리이다.

통(通)성경의 방법론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하나의 대상에 관해 여러가지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꽃을 눈으로 인식할 때와 코로 인식할 때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꽃을 가까이서 볼 때와

³⁵ Ibid., 60.

³⁶ Ibid., 61.

³⁷ Ibid., 62.

멀리서 볼 때가 다르고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볼 때가 다르다.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꽃이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긍정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요 믿음의 조상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된 자이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안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을 훈련시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 만약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부분만 보았다면 불안정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스토리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찾는 것이다. 빌레몬서를 예로 들었을 때, 로마 제국은 로마시민의 보호를 보장하지만, 노예의 자유를 허락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제대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로마 시대에 시민들은 보통 최소한 노예 몇 명은 반드시 두고 살았다. 노예는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주인을 평생 모셔야 했기에 주인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노예들에게 교육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더 잘 보필시키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다. 이런 삶을 살아야는 오네시모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도망갔다. 도망간 오네시모는 우연히 로마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네시모의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바울은 오네시모한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주었고, 그 편지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부탁의 글이 적혀있었다(몬1:16). 이 부탁은 그 당시 노예에 대한 대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세 번째,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봐야한다. 각 부분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시각과 함께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루어져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각 부분이 이룬 전체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 역시도 매우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로 형성된 사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 사회를 이루는 개인 역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한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비춰질 것이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숲과 함께 숲을 이루는 나무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죄로 인한 심판 역시 이방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읽지 못했을 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본문 스토리의 전후사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을 보는 관점이나 경로를 같이 고려해야한다. 대상을 보는 관점이나 경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인물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와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평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우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지만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우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윗을 예로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찾아온 사건은 보는 관점을 통해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언약궤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무서운 모습을 가진 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양극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양극단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심판하는 존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장면만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개인과 국가를 심판하시기도 한다. 하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고려한다면 공의를 위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신 사건을 계약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자손 번성의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깊은 신뢰와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였을 뿐이다. 계약의 파괴와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이 두 가 극단의 이야기는 통(通)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이렇듯 성경을 통(通)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역사순서가 아닌 장르로 구분으로 배열되어 있다. 구약 39권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5권, 예언서 1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세 번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병호는 성경 66권을 역사순서대로 배열하고,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20개의 마당으로 정리하였으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40개의 스토리 줄기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성경 66권 역사 순 배열(20마당,40개 줄기)³⁸

역사 순 배열	20마당	40개 줄기
창세기	1마당: 하나님의 마음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1장~10:10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4과 출애굽과 제국 5과 세계 선교의 꿈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민수기10:11~36장 , 신명기, 시편 90편	3마당: 만나 세대	7과 만나세대 8과 만나학교 졸업

³⁸ 조병호, 통(通)성경 길라잡이, 417.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마당: 신앙 계승	9과 약속의 땅 입성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사례
사무엘상·하, 역대상, 시편, 열왕기상1~2장	5마당: 천년 모범	12과 미스바 세대 13과 왕정의 시작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열왕기상 3~11장, 역대하 1~9장, 시편 72, 127편,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6마당: 마음과 지혜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20장, 역대하 10~32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사야, 미가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6과 남북 분열 왕조 17과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하 21~25장,	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18과 남유다 멸망 19과 잠간의 징계

역대하 33~36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오바다,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과 포로민 설득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에스라, 시편119편,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10마당: 재건 공동체	22과 성전 재건 23과 성벽 재건 24과 고백과 침묵
신구약 중간사	11마당: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25과 헬라제국과 중간사 26과 로마제국과 중간사

<p>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장~3:19, 누가복음 1장~6:19, 요한복음 1~2장</p>	<p>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p>	<p>27과 예수님의 탄생</p>
<p>마태복음 5~19장, 마가복음 3:20~10:31, 누가복음 6:20~19:10, 요한복음 3~11장</p>	<p>13마당: 한 영혼 사랑</p>	<p>28과 공생애 3년</p>
<p>마태복음 20장~27:31, 마가복음 10:32~15:20, 누가복음 19:11~23:25, 요한복음 12장~19:16</p>	<p>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p>	<p>29과 마지막 일주일</p>

<p>마태복음 27:32~28장, 마가복음 15:21~16장, 누가복음 23:26~24장, 요한복음 19:17~21장</p>	<p>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p>	<p>30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p>
<p>사도행전 1~12장</p>	<p>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p>	<p>31과 열리는 제자시대</p>
<p>사도행전 13장~21:16,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p>	<p>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p>	<p>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p>

<p>사도행전 21:1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p>	<p>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p>	<p>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p>
<p>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p>	<p>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p>	<p>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p>
<p>요한계시록</p>	<p>20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p>	<p>40과 최후 승리의 노래</p>

제1마당에는 원역사, 족장사, 입애국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인의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한탄이 나온다. 특히 창세기 6장에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한탄을 넘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그 후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손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 중 요셉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

2마당에는 노예로 전락한 아브라함 민족들의 상황이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힉소스 왕조가 들어섰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는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인정하지 않고 노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민족이 될 만큼 번성하였다. 번성한 그들이 계속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그들은 절대 애굽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명령하여도 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민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의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수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를 약속하셨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통제할 법을 부셨고 제사장 나라가 마땅히 행해야 할 5가지 제사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3마당에서는 광야생활을 통한 훈련이 시작된다. 아브라함의 민족들은 이 광야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된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의 민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40년동안 광야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것을 통하여 40년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 그들은 드디어 광야훈련을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마친 아브라함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율법 교육을 시키셨다.

4마당에서는 40년동안 훈련을 받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여호수아는 나라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민족, 법, 땅을 얻기 위한 여정이었고 드디어 마침내 그 여정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신앙교육에 실패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신앙교육이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그 사례는 바로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다. 신앙교육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제사장 나라의 희망은 꺼지지 않게 되었다.

5마당에서는 암흑의 사사시대를 벗어나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이 온전히 서게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미스바에 모여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의 공격을 무찔러 주셨다. 이로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체험한 사건 이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고 그들은 급기야 왕을 원하게 된다. 그들은 왕을 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려지는 제사장 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류하시어도 소용이 없었기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지만 그 사울로 인하여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온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그 누구보다 제사장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운영하였다.

6마당에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사장 나라를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잘 다스렸다. 특히 솔로몬은 다윗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맞추며 제사장 나라의 전성시를 맞이하였다.

7마당에서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윗의 왕조를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나라는 쪼개지고 만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왕 중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8마당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새롭게 바뀌는 남유다를 볼 수 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악행을 일삼았다. 그 결과 많은 선지자들의 노력과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된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성전에 있던 제사 기구들이 깨지고 약탈당하며, 제사장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을 것이다.

9마당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대하여 볼 수 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 이스라엘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과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와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낙담한 사람에게 동떨어진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10마당에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포로 귀환이 시작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이 그동안 잘 닦아 놓은 삶의 기반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야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바벨론이라는 신문명을 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꿈을 가지고 3차 포로 귀환을 시작한다. 모두의 노력과 희생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였다. 새롭게 건설한 성전의 기능은 멈추었고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들마저 도망가고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완악하여 졌고 자신들이 왜 포로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조차 잊어버리듯 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침묵하였다.

11마당에서는 침묵의 400년동안의 스토리가 나온다. 크게 헬라 제국과 중간사, 로마 제국과 중간사로 나뉘며 헬라 제국의 중간사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문명,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발흥하는 로마,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가 나온다. 로마제국과 중간사에서는 로마의 통치, 예수님과 가이사, 신약시대 로마의 총독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12마당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에 대하여 설명한다.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그리스도의 계보라(마태복음 1:1)고 시작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를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 시대의 사건들이 작용하였다.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이유로 호적을 시행하라 명하였기에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다. 또한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인근 마을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3마당에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모두가 상대하지 않는 광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다. 또한 예수님은 소외되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하였고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4마당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히 하였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과 논쟁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외식을 꾸짖으셨다. 또한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인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다. 그리고 그날 밤 잡히신 예수님께서서는 밤새도록 심문을 당하였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15마당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자신들의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용서와 사랑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

16마당에서는 제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세계선교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경강림 사건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되고 심지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3천 명을 회개시킨다. 변화된 제자들은 과거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였고 다른 종교지도자들의 협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라 선포하였다. 제자들은 일곱집사를 선택하여 교회의 역할을 잘 분배하였고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스테반이 순교하였다. 그 후 스테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의 옷을 지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다.

17마당에서는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나라까지 확장되는 내용이 나온다. 먼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초기교회와 유대교와의 분리를 선언하고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1차 전도여행 후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의 틀로 힘들지 않게 하고 그들을 품기로 결정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하였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상기시키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3차 전도여행에서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쟁이 생겨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을 격려하였다.

18마당에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었고.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낸 바울이 로마로 이송된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머물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4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쓴다. 본인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테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다.

19마당에서는 선한 싸움을 위한 공동서신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큰 시련과 복음을 위한 고난 더 나아가 순교까지 당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준다. 기독교가 로마대화재의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쓴 후 로마의 핍박과 박해는 더 강해졌다. 심지어 거짓교사들이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공동서신(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을 통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쳤다.

20마당에서는 황제숭배로 인하여 로마의 종교탄압이 시작되었다. 로마의 핍박은 극에 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 각오하며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요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계시를 설명한다.

통(通)성경을 통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의 가장 큰 요소인 감정을 가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통 성경은 최고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통 성경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통 성경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보시며 좋았다고 하는 감정을 드러내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았던 마음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여호수아 1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런 여호수아를 권면하시며 전의를 가다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며 사사기에 10장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근심의 마음이 나타난다. 특히 십자가의 사명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까지 하게 한다. 이처럼 통 성경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간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준다. family school 통(通)성경포물라에서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인물들의 마음이 담긴 스토리를 크게 20가지로 정리했다.

<표2> 하나님의 마음열기 Heart Training³⁹

1.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 2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 때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의 아픈 하나님의 마음	
2. 열방을 향한 꿈	
출애굽기 6: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³⁹ 조병호, *Family Shool 통(通)성경 포물라* (서울: 통독원, 2020), 73.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9: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홍수 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	
3. 만나세대	
신명기 6:7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꿈을 40년 만에 자신들의 마음에 담은 60만 만나세대	
4. 신앙계승	
여호수아 1:6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룻기 2:13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대 하니라
사사기 10:1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기쁨과 끊어지는 슬픔	
5. 천년모범	
사무엘하 7:3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사도행전 13:22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 마음의 꿈이 제국 건설이 아닌 천년모범 예루살렘 성전 건축	
6. 마음과 지혜	
열왕기상 4: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11:4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 부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시작 됨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호세아 11:8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200년간 고멜 같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 절망 앞에 선 희망	
예레미야애가 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전이 불타는 절망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이 새 언약, 마음 언약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희망선언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에스겔 33:11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6:26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설득하는 에스겔의 외침	
10. 재건공동체	
느헤미야12:43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만나세대에 이어 재건 공동체의 찬양소리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1.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말라기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2. 기쁨을 위한 탄생	
누가복음 2: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양틈에 자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까지 ‘영광의 기쁨’ 을 알리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13. 한 영혼 사랑	
마가복음 5:19	너를 붙잡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1:33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붙잡히 여기서
마태복음 11:29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양 틈에 자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까지 ‘영광의 기쁨’ 을 알리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14. 용서를 향한 열정	
마태복음 26:38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3:34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품으시는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마태복음 28: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누가복음 24:34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 들을 영광과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16. 열리는 제사 시대	
사도행전 1:14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가 된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 를 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도행전 15:11	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23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모든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름다운 결정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디모데후서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4:8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준비된 면류관을 꿈꾸는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와 마가가 믿고 따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베드로전서 3:8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땅끝까지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 21:5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일서 3:19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

통(通)성경은 표와 같이 스토리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서 나타내고 있다.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한탄하시는 마음, 사랑하지만 징계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 죄악 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다시 사랑하는 인간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마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들을 통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자기감정인 것처럼 공감할 수 있다. 우리가 TV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스토리에 빠지는 이유 역시 등장인물의 설렘, 긴장감, 억울함, 기쁨과 같은 감정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상담에서 주로 쓰이는 전이, 역전이 역시 감정에 대한 공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이들의 사고, 기억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通)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다 스토리텔링은 될 수 없다. 온전한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한다. 또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긴장, 갈등, 문제해결 등의 스토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통(通)성경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스토리텔링이라 볼 수 있다.

교육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이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형성, 창의력증가 수업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통(通)성경은 교회 학교 교육에 있어서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최고의 스토리텔링이다. 이 복음의 스토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어

교육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시킬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흥미가 없는 교육은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아이들이 교육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에 집중하게 만든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교회 학교 교사의 난제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회의 공과시간은 교사는 열과 성의를 다해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소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왜? 아이들은 공과시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빨리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이 공과시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수업방식이 정보전달의 효율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단순한 정보 암기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교육방법은 아이들로 하여금 교육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며 금방 기억 속에서 잊히게 된다. 특히 공과시간에 접하는 성경적 지식은 학교에서 형성된 아이들의 기존의 스키마(schema)와 충돌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주입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는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교육이라는 것은 재미만을 강조할 수 없다. 스토리텔링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지식과 교훈이 없는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올바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스토리텔링은 지혜와 교훈을 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에 흔히 등장하는 선과 악의 대결 선을 행하면 복이 오고 악을 행하면 벌이 따른다는 내용으로 선한 주인공에게 박수를 보내며, 자신도 선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그 안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⁴⁰

최고의 스토리텔링인 통(通)성경은 이러한 측면에서 유용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스토리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기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루어진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생활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⁴¹ 요셉의 억울한 누명이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차별당하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의 경험일 수도 있다. 또한 주변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마리아사람의 감정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거나 혹은 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험했을 만한 이야기 혹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성경의 스토리를 활용하며 그 속에 새로운 성경적 스키마(schema)를 담아낸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⁴⁰ 배철우, *독서교육,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4), 17.

⁴¹ 황신웅,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30.

제 IV 장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

성경을 통(通)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병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22절을 제사장 나라의 헌법 제1조”⁴² 라고 말한다.” 제사장 나라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세상의 제국들과 달리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며 살아야 했다.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을 통한 제국건설의 꿈꾸지 않아야 했고 오로지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에 집중해야 했다. 이 언약을 충실하게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며 그 나라를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시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계획하셨다. 구약의 내용이 제사장 나라의 건설과 제사장 나라의 스토리라면 신약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⁴² 조병호, *성경통(通)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4), 22.

과정의 스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通)으로 읽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세울 만큼 인구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사장 나라를 성경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정착시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430년동안 고통을 받아야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의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루셨다. 유월절 밤에 바른 어린 숫양의 피로 인하여 아브라함 자손의 장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나라이다. 5가지 제사(출애굽기 19:5 - 24:1)를 통해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라는 기회를 주셨다. 제사를 통해 흘리게 되는 피는 죄의 용서가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어린양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 간의 나눔과 사랑이 있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안식년(레위기 25:3-7)은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을 일곱째 해에 쉬게 한다. 남아있는 씨앗으로 인하여 안식년에 생긴 곡식의 소출은 고아와 나그네에게 나눠주며 이웃 간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네 번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유지되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다. 조병호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그 개념이 나왔다.”⁴³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제사장은 매우 중요하다. 갈링은(Galling은) 제사장들의 행위 중 제일 중요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예배하는 나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⁴ 즉 제사장의 역할로 인하여 나라의 정체성이 결정 되는 것이다. 이렇듯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며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유지되는 나라이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기존에 있던 나라들과 매우 다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은 모두 전쟁을 통한 대형제국을 꿈꿨다.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로 인하여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가 흘러져야 했고

⁴³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48.

⁴⁴ John I. Durham, *WBCT성경주석3 출애굽기*, 손석태, 채전석 역 (서울: 솔로몬, 2011), 441.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다. 죽음에서 힘들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제국을 만들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야
 했다. 제국의 왕들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풍요를 원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꿈꾸는 나라가 아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스라엘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기존 나라들처럼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곡식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생존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경쟁하며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콩 심은 곳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서 팥이
 나며, 뿌리대로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법칙이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는 다르다. 제사장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유지되는 나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던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업적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제국을 꿈꾸던 고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과 제사를 성실히 지킨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시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3절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이다. 기존의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만을 위한다. 자신들의 나라가 번성하고
 유지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아도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다르다. 제사장 나라는 자기 나라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이방민족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까지 연결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구약이 제사장 나라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였다. 조지 엘던 래드(George Eldon Ladd)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약의 뿌리에 박혀 있다고 하였다.⁴⁵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로 볼 수 없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시킨 나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구약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인용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역사와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진행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나라라고

⁴⁵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9), 147.

하였다.⁴⁶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준비되고 있었고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4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고 로마의 폭정을 견뎌야 했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이 히브리 장자들을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주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다. 그로인하여 이제는 제사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양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그 당시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다. 예수님께서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이다. 예수님께서서

⁴⁶ 김성수,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신학정론* 21(1993), 336.

십자가 사건 이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1000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종료 시키셨으며 그로 인해 이제는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 아니며 제사를 드리는 공간도 아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필요가 없다. 이는 성전에서 교회로, 장자에서 제자로 패러다임이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⁷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사장 나라의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 마태복음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⁴⁷ Ibid., 221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0-14) 또한 스가라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꿇겼고 전쟁하는 활도 꿇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9-10)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였고 이 예언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12-15)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이 선포되었고 유대인들은 선포된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지도자 그룹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사상이 예수님의 행보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김태훈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⁴⁸ 이러한 사상은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들의 사상과 다른 행보를 보였던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던 종교지도자들은

⁴⁸ 김태훈, “유대주의 보편주의 입장에서 본 이방 개종주의 전통”, *신약논단* 18(2011), 635.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낸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시고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의 피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면서 제사장 나라의 종료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성서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고 더불어 대제사장의 기능도 사라졌다. 이로서 제사장 나라는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필요할 뿐이다. 이처럼 성경은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제사장 나라를 설명하는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通)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 VI 장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와 통(通)시즌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상황과 원인분석

설교 시간에 고등부 학생들에게 성경인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민망해서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고등부 학생들은 내가 질문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치유하는교회 교육부는 고등부에 오기 전까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총 6개의 부서를 거친다. 이 6개의 부서에서 성경인물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사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 성경인물에 대하여 강단에서 설교하고 공과공부시간에 교육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 6개의 부서를 거치면서 6년이나 교회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경인물 한 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현상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그것은 교육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스토리가 있어도 하나의 내용을 통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파편화 된 조각의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스토리가 결국은 하나의 스토리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육에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와 어떤 목적을 심어준다. 또한 가치관과 기억의 구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많은 스토리가 있어도 스토리에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정해진 답만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요즘 청소년들은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이색적인 공간에 갈 때 여기 감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 감성 있게 입었다는 표현을 쓴다. 감성과 감정의 공통점은 둘 다 느끼는 것이고, 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공감했느냐에 따라서 감성이 있는 곳이 되고, 감성이 있는 패션이 되듯이 교육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공감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암송과 요절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요절의 아무런 의미와 배경적 지식이 없이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당시에는 외우는 것 같지만 며칠 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세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 문제점을 해결할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하였고 고민 끝에 통(通)성경을 교육프로그램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먼저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인 수련회를 통(通)성경을 기반으로 계획하였다. 수련회를 첫 도입으로 결정한 이유는 수련회가 아이들의 신앙에 터닝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던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변화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되는 수련회를 통(通)성경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 때 수련회 무용론에 대한 글이 페이스북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단지 화려한 조명과 분위기로 인해 생기는 감정의 변화를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는 문제제기가 그 당시 큰 화제였다. 그 문제제기에 나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동의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통로는 성경이다. 물론 기도와 찬양 중에 방언과 은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창조전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전체 통(通)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스토리를 이용하여 2박 3일 수련회를 기획했다. 수련회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스토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에 맞춰졌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전체 통(通)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만약 수련회가 지루했다는 피드백이 대부분이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한번만 진행되는 단발성 행사, 단발성 교육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을 성경공부로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성경공부와 식사를 위한 조별 암송미션 그리고 설교시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교육하고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먼저 식사를 위한 조별 미션을 기존의 성경구절 암송을 통 성경학교에서 제공한 “성경66권의 권별 시작과 끝 스토리”⁴⁹로 대처하였다. 성경 각 권 별의 스토리를 조직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각 권 별의 전체내용을 파악하여 각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그 스토리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동물원이나 놀이 공원에서

⁴⁹ 조병호, *52일 성경통독교재*, (서울: 통독원, 2021), 1.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듯이 각 성경의 전체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通)성경에서 제공한 표를 이용하여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 조에 지급된 미션카드를 보고 조원들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2개의 성경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성경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의 스토리를 외운다. 미션표에 나온 성경의 범위는 범위자체에 의미가 있지는 않다. 단지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성경한권의 내용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였고 조 숫자에 맞춰 범위를 세팅한 것이다. 이렇게 7개의 조에 편성된 학생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경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의 스토리를 외우면서 고등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의 스토리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조별암송미션(1)

MISSION 1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2개의 처음과 끝을 외우고 릴레이로 말하시오

예/ 김택훈 1,2번 외우면 그 다음 신제국 3,4번 외우면,

그 다음 이성훈 5,6번을 릴레이로 외운다.

팁! 서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선택한다

1.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창조이며 그 끝은 요셉의 유언이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이다.
2.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가 갈대상자를 탄 이야기며, 끝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중간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이다.
3. 레위기의 시작은 다섯 가지 제사이며, 서원을 헌물 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아론의 첫 제사장 취임식의 이야기이다.
4. 민수기 시작은 모압 평지에서 두 달간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며, 끝은 느보아산에서의 모세의 죽음이다. 그리고 중간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즉, 쉼마의 이야기이다.
5. 신명기 시작은 모압 평지에서 두 달간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며, 끝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가나안 땅 분배의 이야기이다.
6. 여호수아 시작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요단강을 건너가라”이며, 끝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는 이야기이다.
7. 사사기 시작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 정복이며, 베냐민 지파의 쇠락과 총회의 결정 이야기이다.
8. 룯기 시작은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며, 끝은 보아스 족보이다. 그리고 중간은 룯과 보아스의 만남이다.
9. 사무엘상 시작은 한나의 기도이며, 끝은 80세 된 사울의 자결이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의 기름부음 이야기이다.
10. 사무엘하 시작은 사울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이며, 끝은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사이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그림2> 조별암송미션(2)

MISSION 2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2개의 처음과 끝을 외우고 릴레이로 말하시오

예/ 김택훈 1,2번 외우면 그 다음 신제국 3,4번 외우면,

그 다음 이성훈 5,6번을 릴레이로 외운다.

팁! 서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선택한다

11. 열왕기상 시작은 솔로몬 왕의 즉위이며, 끝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솔로몬의 낙성식 이야기이다.
12. 열왕기하 시작은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이 만난 이야기이며 끝은 남유다 멸망이다. 그리고 중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다.
13. 잠언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며, 끝은 르므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이다.
14. 아가 시작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이며, 끝은 르므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이다.
15. 전도서 시작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며, 끝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솔로몬의 당부이다
16. 욥기 시작은 하나님 자랑 욥 이야기이며, 끝은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이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17. 시편 시작은 복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며, 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이야기이다.
18. 아모스 시작은 각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이며, 끝은 남은자들이 본토에 심기리라는 예언이다.
19. 호세아 시작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이며, 끝은 긍휼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절규이다.
20. 요나 시작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른 요나 이야기이며, 끝은 박넙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이다. 그리고 중간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이다.

<그림3> 조별암송미션(3)

MISSION 3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2개의 처음과 끝을 외우고 릴레이로 말하시오

예/ 김택훈 1,2번 외우면 그 다음 신제국 3,4번 외우면,
그 다음 이성훈 5,6번을 릴레이로 외운다.

팁! 서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선택한다

21. 이사야 시작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이며,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선포이다.

22. 미가 시작은 사라미라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이며, 끝은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야기이다.

23. 스바냐 시작은 여호와와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스바냐의 외침이며, 끝은 그 날에 남은자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 약속의 선포입니다.

24. 하박국 시작은 니느웨 대한 중한 경고이며, 끝은 피의 성 니느웨가 황무할 것이라는 나훔의 예언이다.

25. 나훔 시작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이며, 끝은 피의 성 니느웨가 황무할 것이다. 라는 나훔의 예언이다.

26. 요엘 시작은 이스라엘의 임박한 환란을 메뚜기와 황충에 비유하는 이야기이며 끝은 그 날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중간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7. 예레미야 시작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이야기이며, 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야기이다.

28. 예레미야애가 시작은 밤새도록 애곡하는 예레미야이며, 끝은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이다.

29. 오바댜 시작은 “애들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끝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선포이다.

30. 역대상 시작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족보이며, 끝은 성전건축을 위한 다윗의 예물준비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열두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이다.

<그림4> 조별암송미션(4)

MISSION 4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2개의 처음과 끝을 외우고 릴레이로 말하시오

예/ 김택훈 1,2번 외우면 그 다음 신제국 3,4번 외우면,

그 다음 이성훈 5,6번을 릴레이로 외운다.

팁! 서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선택한다

31. 역대하 시작은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 번제이며, 끝은 고레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명령이다.

32. 에스겔 시작은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것이며, 끝은 모든 지파대로 땅을 나누게 된다는 예언이다. 그리고 중간은 예루살렘의 3차 함락이다.

33. 다니엘 시작은 다니엘의 바벨론 1차 포로이며, 끝은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중간은 다니엘의 사자굴 기도이다.

34. 에스라 시작은 고레스 왕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명령이며, 끝은 에스라의 제사장 개혁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한이다.

35. 학개 시작은 성전 건축의 시지가 이미 지났다고 외치는 학개의 이야기이며, 끝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36. 스가랴 시작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스가랴의 외침이며, 끝은 열국에 남은자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37. 에스더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이며, 끝은 부림절이 제정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금식 3일 후 왕과 대면하는 에스더의 이야기이다.

38. 느헤미야 시작은 느헤미야의 금식기도이며, 끝은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이야기이다.

39. 말라기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며, 끝은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금식 3일 후 왕과 대면하는 에스더의 이야기이다.

40. 마태복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며, 끝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정이야기이다.

<그림5> 조별암송미션(5)

MISSION 5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2개의 처음과 끝을 외우고 릴레이로 말하시오

예/ 김택훈 1,2번 외우면 그 다음 신제국 3,4번 외우면,
그 다음 이성훈 5,6번을 릴레이로 외운다.

팁!: 서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선택한다

41. 마가복음 시작은 요단강에서의 세례 요한 이야기이며, 끝은 부활 후 제자들과의 조찬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이다.

42. 누가복음 시작은 세례요한의 출생이며, 끝은 예수님의 승천이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이다.

43. 요한복음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요한의 증언이며, 끝은 부활 후 제자들과의 조찬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이다.

44. 사도행전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이며, 끝은 죄수 신분이 된 바울의 로마 도착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이다.

45. 데살로니가전서 시작은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자랑, 데살로니가 성도 소개이며, 끝은 주의 강림을 강조한 것이다.

46. 데살로니가후서 시작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한 것이며, 끝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47. 갈라디아서 시작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있다는 사도바울의 선언이며, 끝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도바울의 고백 이야기이다.

48. 고린도전서 시작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안부이며, 끝은 예루살렘 상도를 위한 연보를 강조하는 것이다.

49. 고린도후서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부이며, 끝은 고린도 교회로 세 번째 갈 것을 밝히는 이야기이다.



G

<그림6> 조별암송미션(6)

MISSION 6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2개의 처음과 끝을 외우고 릴레이로 말하시오

예/ 김택훈 1,2번 외우면 그 다음 신제국 3,4번 외우면,
그 다음 이성훈 5,6번을 릴레이로 외운다.

팁! 서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선택한다

50. 로마서 시작은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며, 끝은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문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이다.

51. 에베소 시작은 바울의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찬송하는 것이며 끝은 특별히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는 이야기이다.

52. 빌립보서 시작은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쁨의 감사와 간구이며, 끝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이다. 그리고 중간은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야기이다.

53. 골로새서 시작은 에바브라에 대한 공감 이야기이며, 끝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의 비빌, 그리스도 이야기이다.

54. 빌레몬서 시작은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감사이며, 끝은 빌레몬을 형제로 부르며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이야기이다.

55. 디모데전서 시작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며, 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이다.

56. 디도서 시작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밝힌 것이며, 끝은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급히 올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57. 디모데후서 시작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가족 이야기이며, 끝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는 부탁이다.

58. 히브리서 시작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이며, 끝은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 나가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선언'이다.

<그림7> 조별암송미션(7)

MISSION 7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성경 2개의 처음과 끝을 외우고 릴레이로 말하시오

예/ 김택훈 1,2번 외우면 그 다음 신제국 3,4번 외우면,

그 다음 이성훈 5,6번을 릴레이로 외운다.

팁: 서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선택한다

59. 야고보서 시작은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 하는 것이며, 끝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선언이다.

60. 베드로전서 시작은 부활의 소망을 찬송하는 것이며, 끝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61. 베드로후서 시작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끝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경고이다.

62. 유다서의 시작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당부이며, 끝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다.

63. 요한일서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야기이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선포이다.

64. 요한이서 시작은 어느 부녀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이며, 끝은 가서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의 소망이다.

65. 요한삼서 시작은 가이오에 대한 축복이며, 끝은 속히 보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소망이다.

66. 요한계시록 시작은 밧모섬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며, 끝은 속히 오리라 강조해주신 예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중간은 일곱 인을 떼신 어린 양 이야기이다.

G

조별 암송 미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프로그램이다. 성경구절을 “성경 66권의 시작과 끝”의 스토리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지식을 외우는 기존에 했던 주입식 방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각 권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행하였다. 아이들이 처음 암송 미션지를 받았을 때 많은 불만이 있었다. 기존에 암송했던 성경구절보다 양이 많았고 10가지 내용을 다 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 1암송이라는 설명을 듣자 오히려 더 좋아졌다며 열심히 암송을 하였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의 시작과 끝을 외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쉽게 내용을 외웠기 때문에 식사의 시간차를 위하여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암송미션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빨리 외운 만큼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점심에 외운 점심에 외운 내용을 저녁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 그로 인해 점심과는 달리 미션에 통과해서 식당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이 딜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스토리가 없는 단순 암기교육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쉬는 시간 아이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송 미션을 기억했던 친구들 중 3명에게 동일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 3명의 친구들의 암송 미션성경이 구약이라는 것과 각각 차례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을 외웠다는 것이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외운 아이들만 내용을 기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공부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이 제사장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제사였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들은 성경의 시작과 끝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외웠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신이 외운 성경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련회 마지막 날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에 진행한 성경공부의 내용과 설교가 자신의 암송미션과 겹쳤던 친구들은 모두 암송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도 이 친구들은 암송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타인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외웠던 암송미션의 스토리가 성경공부 시간에 교제로 나오고 설교의 본문으로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수련회 이후에 설교를 듣는 자세와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전과 분명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 설교

수련회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시간이다. 평소에는 설교를 잘 듣지 않은 아이들도 이때만은 설교를 잘 듣는다. 그래서 수련회 설교시간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通)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훈련시키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시간이다. 제사장 나라는 구약의 핵심 내용이며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핵심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통(通)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설교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설교 전 조별 성경공부를 통하여 설교의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하여 설교의 시간을 단축하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8> 수련회 설교(1)



첫째 날 여는 예배 intro Worship

제목: 시작된 하나님의 꿈

성경: 창세기: 12:1-2

강사: 이재우 목사

설교 point

- 1) 제사장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아브라함
- 2) 제사장 나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순종
- 3) 제사장 나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여정

결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곳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2박 3일을 보내자.

여는 예배는 수련회의 첫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에 맞게 첫 시작의 설교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첫 시작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제사장 나라의 첫 시작이며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이 항상 쉽고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던 우르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때로는 아들 이삭에 대한 기도응답이 너무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곳으로 온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자는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였다.

<그림9> 수련회 설교(2)



첫째 날 저녁 예배 Harmony Worship

제목: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 출애굽기 15:5-8

강사: 이재우 목사

설교 point

- 1) 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가?
- 2)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제사랑 나라
- 3) 이웃과 이웃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제사랑 나라
- 3) 나라와 나라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

결론: 제사장 나라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용서, 나눔, 평화가 있어야 한다.

첫째 날 저녁 예배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하였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 세우신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만큼 기준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많이 달랐다. 그 시대 나라들은 모두 제국을 꿈꾸었다. 제국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야 했다. 목숨을 겨우 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자원이 되어 고통과 억압을 견디며 힘들게 노예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제국을 꿈꾸지 않는다. 제사장 나라는 이웃나라와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전쟁과 피 흘림이 아닌 화목과 나눔, 용서가 있는 나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폭력과 아픔으로 물든 기존의 나라가 아닌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 나라의 건설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잘 이행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사이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하여 인간을 초월한 존재 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제사를 통하여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여 계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제사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일반 나라들이 경제활동과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유지했다면 제사장 나라는 제사로 나라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제사가 변질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국가의 큰 위기가 닥쳤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각자의 삶, 각자의 세계에서 이웃을 향한 사람과 나눔이 있기를 원하시며 더 나아가 각자의 삶과 각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기준에 맞추며 살아왔다. 세상이 원하는 성적,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본받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자는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였다.

<그림10> 수련회 설교(3)



둘째 날 아침 예배 Morning Worship

제목: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 레위기 14:3,20, 마태복음 1:44

강사: 이재우 목사

설교 point

- 1)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 나라
- 2)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하나님 나라
- 3)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하나님 나라
- 3)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 하나님 나라

결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 되어야 한다.

둘째 날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하였다. 전날 저녁에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했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업그레이드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구약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구약의 제사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쏟는 일이었다. 제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물을 선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동물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의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점점 오래 살게 되었고 그 숫자도 많아졌다.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짓는 죄도

넘쳐나게 되었고 죄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 존재 이신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죄를 전가 받는 제물 즉 어린양이 되어야했다.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린양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로 완성된
 나라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당하셨다.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에 비해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자는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였다.

<그림11> 수련회 설교(4)



둘째 날 저녁 예배 All night Worship

제목: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 레위기 14:3,20, 마태복음 1:44

강사: 이재우 목사

설교 point

- 1) 왜 마지막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전환되었나?
- 2) 왜? 대제사장들은 인정하지 않았나?
- 3) 성전에서 교회로의 전환

결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 되어야 한다.

둘째 날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교회에 대하여 설교를 진행하였다. 신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바리세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하였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게 하였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던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였다. 총독까지 협박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당시 그들의 위세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제일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식이였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던 큰 사건이였다. 문에 어린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목숨을 건 질 수

있었으나 어린양의 피를 바르지 못했던 애굽의 장자는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유월절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념일인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제 제사장 나라는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떠올라야 한다. 그래서 유월절에 성찬을 하시면서 어린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면서 제사를 진행했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도 아니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한다. 내 삶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내 삶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야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삼아 우리 역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에서 벗어나 세상의 교회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자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눈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야 했다. 4번에 설교 중에서 첫째 날 2번의 설교는 제사장 나라의 의미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루었고 둘째 날 2번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루었다. 아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

민족을 이루는 과장에 매우 큰 흥미를 느끼며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서 성전의 역할 잘 감당해야함을 권면하였을 때 아이들은 저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통(通)성경을 기반으로 한 설교는 그동안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했던 설교와는 다르다. 그동안 수련회 설교는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 받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개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이해하고, 빨리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예화도 많이 사용 되었었다. 하지만 통(通)성경을 기반으로 한 설교는 오로지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의 정보와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자칫 지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배시간 전 성경공부 시간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심어주기로 계획하였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개념을 교육하기 위한 성경공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2> 수련회 성경공부(1)

2021 01
목요일 24 첫날 수련회 성경공부

하나님의 꿈 제 사랑 나라



우리 친해질까요?

제목: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 이름대기

목적: 서로의 이름을 외운다.

- 내용:**
1. 박자에 맞춰서 자기 이름을 한 번씩 말하고 본 게임을 시작한다.
 2. 처음 시작의 지목은 선생님이 먼저 지목한다.
 3. 선생님은 이름이 안 불려진 아이들 있다면 본인 순서에 안 불려진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4. 조 아이들이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3-4번 돌린다.
 4. 진행하면서 이름이 안 불려진 아이들을 1-2명을 추려낸 후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는 게임은 모든 애들이 다 그 아이들만 지목하여 이름을 외우게 한다.
(그 대상이 선생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씩 다 돌면 게임을 끝낸다.



우리 더 친해질까요?

제목: 한손 제로게임

준비물: 양 손

목적: 단순한 스킨십을 통해 빨리 친해진다.



성경공부 주의사항

WARNING

성경공부는 모두가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경책 어플로 같이 보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옆 친구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 13> 수련회 성경공부(2)

1.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3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

땅, 민족, 법

2.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12:1-2)



정답

아브라함

3. 아브라함의 여정은 무엇을 위한 여정이었나요?

(창세기 26:3-5)



정답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의 법을 얻기 위한 여정

4.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출애굽기 19:5, 레위기 1-7장)



정답

5가지 제사로 기능하는 제사장 나라



선생님이 읽어주는 설명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기존의 제국과 다른 나라를 만들고 하시는 꿈을 품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나라를 세우기 위해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림14> 수련회 성경공부(3)



다 같이 읽어보는 Think Tank

아브라함은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삶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2박 3일 동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그 계획에 순종하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됩시다.



기도해봅시다. I pray

밑에 2가지 내용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특별히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 기도합시다.

I pray

1.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수련회 첫번째 날 성경공부는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크 후 진행되었다. 수련회 성경공부는 성경을 직접 찾고 소리 내에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첫째 날 성경공부의 내용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구성원인 민족이 필요하고 민족이 살 수 있는 땅과 민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의 첫 시작이었으며 그 여정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나라는 제사로 운영되는 제사장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죄를 지은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는 반면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나라를 유지하고

지킨다. 나라를 운영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구약성경은의 통(通)스토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스토리의 첫 단추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첫 단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공부를 아브라함의 내용과 제사장 나라의 의미로 결정하였다.

<그림15> 수련회 성경공부(4)

2019 01
금요일

25

둘째 날 수련회 성경공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우리 또 친해질까요?

제목: 말판놀이 이럴 때 행복해

목적: 서로에 대해 알아본다.

내용:

1. 제공한 말판에 주사위를 던져 큰 수가 나온 사람이 먼저 시작하세요.
2. 처음 시작의 지목은 선생님이 먼저 지목한다.
3. 해당하는 말판 위치에 적힌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4. 무인도가 나오면 한 번 쉬세요.
5. 칭찬열쇠가 나오면 모든 친구 중 한명을 선택하여 나를 칭하도록 하세요.
(지목된 친구가 칭찬하여 인정의 의미로 다들 박수와 환호를 하세요)
6. 제일 먼저 도착한 친구가 승리입니다.

말판, 말, 주사위를 못 받은 조는 김선명 선생님, 타임키퍼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림 16> 수련회 성경공부(5)

1.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1)?

(요한복음 1:29)



정답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2.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2)?

(마가복음 8:36)



정답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3.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3)?

(마태복음 27:50-51)



정답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



선생님이 읽어주는 설명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아침 설교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양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는 Think Tank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장 나라의 기능이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가 됩시다.



기도해봅시다. I pray

말에 내용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번에도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 기도합시다.

I p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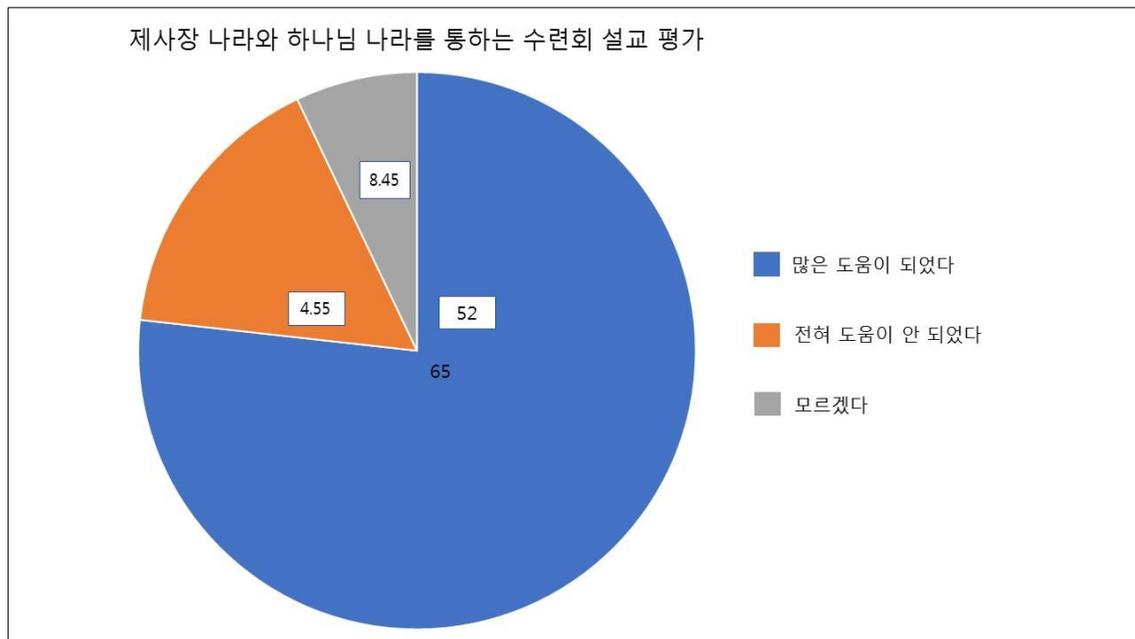
1.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수련회 두 번째 날 성경공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예언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다. 제물의 조건에 부합한 흠 없는 제물을 선별하는 작업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으며 제물을 죽이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고 제물도 필요 없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린양이 되어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를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또한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을 느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공부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수련회 성경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와의 연계였다. 설교의 스토리와 성경공부의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연계 시스템이라 볼 수 있었다. 설교의 스토리가 예습의 역할을 하고 성경공부의 스토리가 복습 및 새로운 학습을 하게 한다. 설교와 성경공부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아이들은 딱딱한 성경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평소의 수련회처럼 좋은 집중도와 좋은 이해도를 보여주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 평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진행한 수련회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교육의 내용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수련회 설교 평가



2박 3일 동안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진행한 수련회 프로그램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5명 중 80%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대답했고, 13%가 도움이 안 되었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한 수련회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通)시즌

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체 통(通)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작업은 2박 3일 수련회 프로그램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또한 수련회 이후 교육의 공백이 생기면 확실하게 교육되지 않기 때문에 수련회 이후 공예배 설교를 통(通)성경으로 대신하는 통(通)시즌을 진행하였다. 성경의 처음과 끝의 스토리를 모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2달 동안 진행하였다. 통 시즌의 설교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인물들의 마음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스토리에 진행하였다. 다만 아브라함이 민족을 만드는 과정은 수련회 기간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요셉과 모세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예배 후 반 모임 시간을 통의 내용으로 진행된 설교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그렇게 통 시즌을 통하여 2달 동안 공예배 설교를 통(通)의 내용으로 설교하였고, 예배 후 반 모임 시간도 통(通)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통(通)시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통(通)시즌 커리큘럼

주차	제목	본문	
1주차	하나님의 마음1	창세기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p>공과 질문</p> <p>1) 제일 좋았던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p> <p>2) 하나님께 제일 좋았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p>			
2주차	하나님의 마음2	창세기 6:6	<p>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p>
<p>공과 질문</p> <p>1)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은 어떤 일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p> <p>2) 하나님께서는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시고 있나요?</p>			
3주차	요셉의 역할	창세기 50:20	<p>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p>
<p>공과 질문</p> <p>1) 살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p> <p>2) 형들의 행동을 지켜본 요셉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p> <p>2)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p>			

4주차	모세의 역할	출애굽기 3:18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p>공과</p> <p>1)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p> <p>2) 다시 하나님께 비전을 제시 받은 모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p> <p>3) 하나님께서 계획</p>			
5주차	5가지 제사 제사장 나라의 법	민수기 1: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p>공과</p> <p>1) 세상의 나라는 무엇으로 그 기능을 하나요?</p> <p>2) 제사장 나라는 무엇으로 그 기능을 하나요?</p> <p>3) 제사장 나라의 핵심과 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p> <p>4) 오늘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p>			

6주차	만나세대	민수기 1:12, 26:5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	------	--------------------	---

공과

- 1) 나라가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 2) 광야에서 진행했던 인구조사의 처음과 나중의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3) 이스라엘에게 만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 4) 여러분의 인생 중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나요?

7주차	약속의 땅 입성과 그 증거	여호수아 4:22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	----------------------	-----------	--

공과

- 1) 간절히 바랐던 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 내 미래의 자손에게 해주고 싶은 나의 경험이 있나요?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3) 나의 멋진 혹은 슬픈 경험을 내 미래의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 할 수 있을까요?
- 4)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세운 돌은 어떤 의미일까요?
- 5) 우리가 내 자녀에게 전해줘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8주차	약속을 잊어버린 세대 사사시대	사사기 2:10-15	<p>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p>
-----	---------------------------	-------------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공과 질문			1)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계약이 파기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1주차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셨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다.” 라는 긍정의 마음이 마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신다. 세상이라는 피조물, 생명이라는 피조물 더 나아가 나라는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2주차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좋았다.” 라는 긍정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신 것은 자신의 피조물 때문이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이라는 부정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피조물 때문에 좋았던 마음이 그 피조물에 때문에 한탄과 후회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인간 때문에 좋아하시기도 하고 한탄하시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행동 때문에 기뻐하시고, 한탄하며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하나님의 후회와 사람의 후회에 중점을 두고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3주차는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 누명까지 쓰게 되었던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역할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요셉은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 지금으로 치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다.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모두 이주시키게 되었다. 요셉의 역할은 야곱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풍요로운 제국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국의 안으로 들어온 야곱의 자손들은 제국이라는 풍요와 안전을 통하여 번성할 수 있었다. 즉 요셉의 역할은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고 누명을 썼지만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듯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때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에 중점을 두었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누명을 쓴 요셉의 마음과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4주차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제시 받은 모세의 마음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을 것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모세였지만 그 결과는 살

인이라는 죄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의 삶이었다. 이제 모세에게 과거의 영광 따위는 없다. 왕족으로서 살았던 풍요로운 삶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꿈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제시 받았다. 그 비전은 자신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비전이었으며 더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민족을 이동시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계획을 이루신다는 교훈에 중점을 두었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5주차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제사와 제사가 가진 의미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제사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나라를 유지한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통하여 나라를 유지한다. 제사장 나라의 활동은 모두 제사를 위함이다. 제사를 위해 가축을 기르고 제사를 위해 농사를 짓는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기술을 통하여 나라를 지킨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이며 제사로 기능하는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제사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무너진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과 제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게 하였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에 대

해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6주차는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 하였다.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였다. 상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40년이나 광야에 있으면 병들어 죽거나 여러 환경의 영향으로 죽게 되어있다. 하지만 인구조사결과 그 숫자가 처음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하여 더 확실한 기적을 체험한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하나님께 제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에 중점을 두었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인구조사의 의미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7주차는 약속에 땅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의 마음과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돌을 세운 내용을 설교하였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 약속에 땅에 입성한 설렘임과 기쁨으로 흥분할 만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돌을 가져오라 명했고 그 돌을 세워 기념하였다. 그 이유는 위에서부터 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길 힘썼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에 중점을 두었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꿈을 이룬 여호수아의 마음과 내 자손에게 마땅히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8주차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의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신앙전수에 실패했다. 하나님을 알았던 조상들이 모두 죽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몰랐던 이스라엘의 다음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으며 힘든 전쟁을 치러야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며 이스라엘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교훈에 중점을 두었다. 공과에서 나누는 질문은 약속의 중요성과 약속이 깨졌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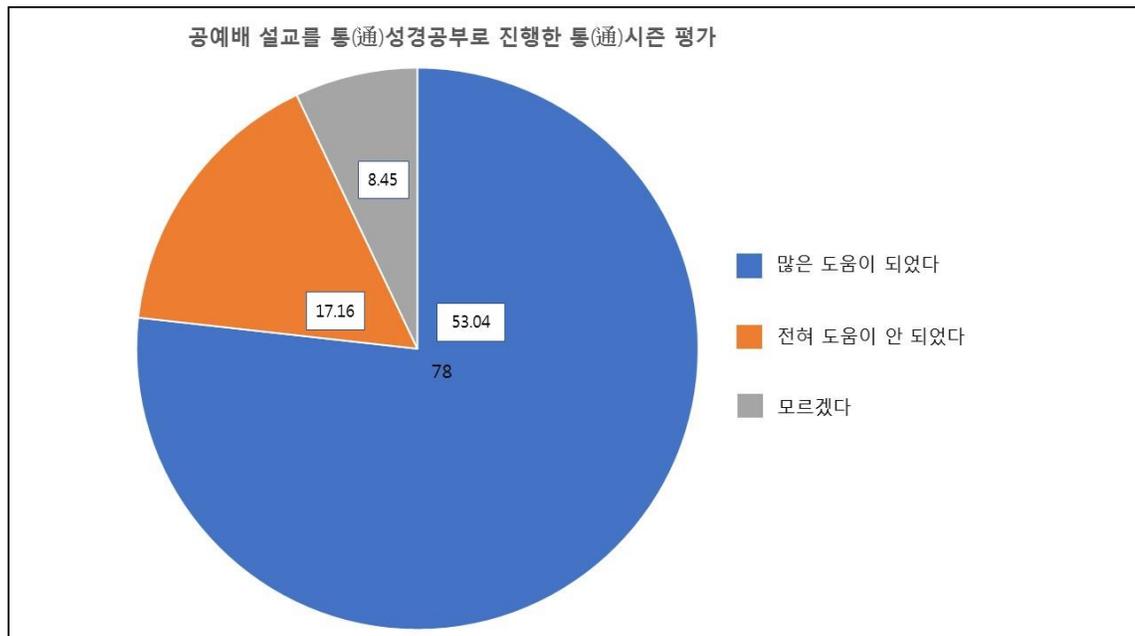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통(通)성경 전체를 교육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2달(8주)동안 설교를 통하여 교육하였고 목장모임 시간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경인물들의 마음과 그 스토리를 나누게 하였다. 교육결과 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는지 새롭게 알았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통(通)시즌 평가

공예배 설교를 통(通)성경공부로 진행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교육의 내용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통(通)시즌 설문조사



2달 동안 공예배 설교를 통(通)성경공부로 진행한 통(通)시즌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78명 중 68%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대답했고, 22%가 도움이 안 되었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로 통(通)성경공부를 공예배 설교로 대체했을 때 학생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通)하는 수련회, 통(通)시즌 설문 및 인터뷰

통(通)성경으로 진행한 수련회와 공예배를 이용한 통(通)시즌에 참여한 친구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드백과 후기를 나누고, 학생, 교사 각 1명씩 2명을 선발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2021년 1월 27일, 2021년 3월 29일 두 차례 진행했다.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 내용이 논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힌 후 동의를 얻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대상자의 실명을 일부만 공개하고, 답변을 중심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관점을 생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2. 통(通)성경을 중심으로 진행된 수련회를 진행하면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3. 2달 동안 진행 된 통(通)성경을 통하여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요?
4. 2달 동안 진행 된 통(通)성경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5. 2달 동안 진행 된 통(通)성경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인터뷰 내용>

김○○(19세, 남)

처음에 저는 성경공부 위주로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재미와는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불참할 계획이었으나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도착하자마자 드리는 예배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설교를 들었을 땐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내용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유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땅을 차지하고, 나라의 구성원인 민족을 이루는 여정이었다는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신선했고 그때부터 수련회에 기대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학생임원도 하고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QT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날마다 QT를 하여도 주일 설교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 외에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박 3일 짧은 수련회를 통해서 왜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지 알게 되었고, 왜 성경을 전체로 봐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진행된 통(通) 시즌은 저로 하여금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성경이 재미없다는 편견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역사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역사 순으로 배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의미를 잘 몰랐고, 읽으라고 하니 억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배운 선에서 까지는 나름 그 의미를 알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통(通) 시즌을 통해 성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을 통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최○○(24세, 여)

수련회전에 진행된 교사 성경공부를 통해 미리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었다. 내용들을 들으면서 솔직히 단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에 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교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교사이지만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성경의 내용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것인가?”

사실 그동안 그 누구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인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주었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 진행되는 통(通)시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진행되는 통(通)시즌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성경을 전체로 보는 훈련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봐야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봤던 것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성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진행되는 통(通)시즌도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김○○(17세, 여)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몇번의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노력 끝에 성경 1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한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읽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답답함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성경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매우 좋았습니다. 저에게 제일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땅을 찾고, 그 땅에서 나라의 구성원인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다스를 법을 하나님께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의 역할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역사순이 아니라 장르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저에게는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고 구약은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18세, 남)

저는 교육 중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성전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약과 신약은 시대를 나누는 구분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과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진 사건과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약과 신약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왜 성경을 꼭 읽어야한다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성경의 내용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통(通)성경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에 제약 때문에 빨리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느낌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제 VI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요약

I 장 서론에서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계승 교육에 실패했으며 코로나를 통해서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현실을 자각하고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통하여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 교회에 다닐 마음이 없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위기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난 교회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재 교회 교육의 문제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현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 포인트 교육, 온라인 교육, 하부르타 교육, 스토리텔링 교육. 총 4가지의 교육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질인 성경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성경을 통(通)으로 교육하는 통(通)성경이 그 본질을 채워줄 것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통(通)성경이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소개하고자 했다. 이어서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연구가 가지는 제한성을 설명하였다.

II 장에서는 현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4가지 교육인 원 포인트 교육, 온라인 교육, 하부르타 교육, 스토리텔링 교육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모든 교육에 있어서 스토리가 필수요소라는 것과 성경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통(通) 성경이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4가지 교육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장에서는 통(通) 성경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설명하였고, 통(通)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통해서 통(通)성경이 스토리텔링 교육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통(通)성경이 무엇인지 설명하였고 통(通)성경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경을 역사순으로 보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Ⅴ장에서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5대 재국에 대해서 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였고 구약 성경의 중요핵심 스토리인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중요핵심 스토리인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방법,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통(通)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Ⅵ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치유하는교회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첫 번째, 교육에 스토리가 없는 문제 두 번째, 교육에 감정이 없는 문제, 세 번째, 암송과 요절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총 3가지의 문제로 설명하였다.

Ⅶ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직접 적용하고 실행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론과 평가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많은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음 세대를 외쳤지만 정작 교육의 방식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다. 결국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교회 학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 즉 자신의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현실이

이러한데 그동안 우리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진행했던 것이다. 사격으로 치면 총의 영점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표적에 조준을 하고 격발한 격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하였다.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고 방송장비를 구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교회 학교 목회자들은 순식간에 유튜버 혹은 방송PD가 되어야 했다. 예전에는 사역자의 기본 조건 중 하나가 찬양 인도였다면 이제는 영상편집이 되어버렸다. 어느 순간 교회 학교 목회자들은 그동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프리미어, 베가스, 파이널 컷이라는 영상프로그램을 배워야만 했고, 많은 시간을 촬영과 편집에 투자해야 했다. 낯설고 힘든 일지만 고생한 만큼 반드시 보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참여율은 현저히 줄었다. 유튜브의 조회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고 그 마저도 영상만 틀어 놓고 다른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얼굴을 보면 대화할 수 있고, 출석체크가 가능한 줌(Zoom)이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급부상하긴 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아이들의 참여도가 좋지 않았다.

요즘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한다. 여호수아 이후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달랐던 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세대가 지금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성도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직도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고, 교회의 목회자가 많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방법만 고집하는 교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교육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존의 교육방법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기성세대의 편협한 사고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를 알지만 정작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잘못된 해결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상 한국 교회에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과거부터 이어졌던 암송이나 주입식 공과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통(通)성경을 제안하고 수련회와 공예배 설교를 통(通)성경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의 수련회와 공예배 설교를 통(通)성경으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성경공부라는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이미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수련회의 기대감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청소년 설교는 흥미와 재미라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통(通)성경으로 진행하면 흥미와 재미의 요소는 많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보통 설교는 공과시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교사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처음부터 공예배 설교를 통(通)성경으로 진행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련회를 통하여서 먼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다루었고, 수련회 특성상 아이들이 평소보다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생기고 성경통독을 결심한 아이들이 생기면서 통(通)성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이해하게 만들며, 새로운 교회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연구결과는 연구의 과정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문 결과와 여러 경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통(通)성경이 성경을 잘 이해하게 만들고, 새로운 교회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가 많은 교회 학교들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외국서적

Chap Clark ed. *Youth Ministry In The 21 Century: Five View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5.

Aliza Segal. *Havruta Study: History, Benefits and Enhancements*, Jerusalem:

Academy for Torah Initiatives and Directions, 2004.

번역서적

John Westerhoff III. *기독교 신앙과 자녀교육*. 임한영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Horace Bushnell. *기독교적 양육*. 김도일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Thomas Groome.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 까*. 조영관, 김경미, 임숙희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John I. Durham. *WBCT성경주석3 출애굽기*, 손석태, 채전석 역. 서울: 솔로몬, 2011.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9.

국내서적

문화랑. *미래 교육 지도그리기*.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21.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권순웅.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경기도: 피톤치드, 2020.
-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13.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동연. 2013.
- 전성수. *자녀교육의 혁명 하브루타*. 서울: 두란노서원, 2020.
- 이정현. *주일학교 체인지*.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21.
- 김병삼 외. *올라인 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21.
- 최성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1.
- 황신웅.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 배철우. *독서교육,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14.
- 조병호. *family school 통(通)성경 포물라*. 서울 : 통독원, 2020.
- 조병호. *성경통(通)독과 통(通)신학*. 서울 : 통독원, 2014.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 통독원, 2018.
- 조병호. *통(通)성경길라잡이*. 서울 : 통독원, 2016.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 통독원, 2011.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 통독원, 2014.
- 조병호. *52일 성경통독교재*. 서울 : 통독원, 2021.

통계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01.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2021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94, 2018

김태훈. “유대주의 보편주의 입장에서 본 이방 개종주의 전통.” *신약논단* 18, 2011.

김성수.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신학정론* 21, 1993.

웹사이트

<https://kcnp.com/news/view.php?no=6163>

http://ko.wikipedia.org/wiki/젊은이의_반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4409&cid=42107&categoryId=42107>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A%B3%A0%ED%92%8D>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aewooLee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January 26,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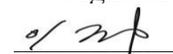
Parent's Names: Lee Myungbok, Park Yongsoon

EDUCATIONAL INSTITUTIONS

Name	Address	Degree	Date
Dongyang High School	50, Heojun-ro,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2002
Seoul Christian University	26-2, Galhyeon-ro 4-gil, Eunpye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h. B	Mar 2, 2003
Hanil Jangsin University	726-15, Waemok-ro, Sanggwon-myeon, Wanju 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M. Div	Feb 4, 2016
Graduate School of Healing Counseling University	121, Seoch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M.A	Dec 18, 201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aewoo Lee

Name typed

Feb 20, 2022

Date